



천주교 전주교구

전 동 성 당

주임신부: 남 종 기 고 스 마
 보좌신부: 김 건 솔 프 란 치 스 코
 수녀: 강 도 순 레 지 나
 수녀: 최 윤 희 글 라 라
 사목회장: 장 은 수 요 한

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사무실: 284-3222/ 팩스: 282-6232/ 애령회장: 010-8644-6007

www.jeondong.or.kr / e-mail: jdcatholic@daum.net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순례자미사) 오후 6시(학생미사)			◎ 교황님의 기도 지향 · 4월
	· 주 일: 오전 6시,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6시 화 ~ 금: 오전 11시			보편 지향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하여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에서도, 기본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봉성체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2시	
고해성사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흄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예비자 교리반	일요일 오전 9시~10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루카 24,36):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 그림:www.erzdioezese-wien.at

◎제1독서: 사도행전 3, 13-15, 17-19 ◎제2독서: 요한1서 2, 1-5ㄱ ◎복음: 루카 24, 35-48

◎화답송: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말과 행동은 없다”

1. 이 세상에는 하찮아 그저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의미 없는 말과 행동이란 없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자리에, 아니면 세상 어느 한 모퉁이에 떨어져 어떠한 형태로든 살아남아 자신만의 결을 지닌 결과를 맺습니다.

과학자들은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전 물질의 성분은 어떠한 화학반응을 거쳐 변하더라도 사라져 없어지지 않고 새롭게 생성된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질량보존의 법칙’ 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 사실 역시 우리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업(業)이라는 말로 풀이하는데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속 뜻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선업, 혹은 악업으로 남게 된다고 말합니다.

2. 성경의 시작은 하느님의 위대한 창조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모든 만물이 조화롭고 아름다웠던 태초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느님의 뜻에 반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저 나무 열매 하나를 따 먹었을 뿐인데, 그로 인해 태초의 모든 조화, 즉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만물 사이의 모든 조화는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엔 가벼운 생각이란, 말이란, 행동이란 없습니다. 자그마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아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3. 죄와 악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온 선한 뜻과 말, 행동 역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저 무의미하게 사라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벼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은 무의미하게 허공 속으로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다는 것을, 최악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뛰어넘어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가톨릭교회의 성모님 공경” (시작하며)

가톨릭교회의 성모님 공경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보통 요한으로 이야기합니다)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 제자는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고(요한 19,27), 성모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활동하셨습니다(사도, 1,14).

한국 가톨릭교회 역시 초창기부터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며 공경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는 단연 묵주기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또 모든 가정에는 예수님 상과 함께 성모님 상이 있을 만큼 성모님께서 우리 신앙을 함께 동반해 주십니다.

하지만, 같은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나라의 프로테스탄트(개신교)는 가톨릭교회의 마리아 공경을 우상 숭배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마리아교’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가톨릭교회를 깎아 내리기에 여념이 없지요.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일찍이 성모님 공경을 하느님 흠숭과 엄격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라 기도하지만, 성모님 또는 성인들을 향해서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기도가 향하는 대상이 하느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모님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함께 잘못된 성모 신심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대 꽃 봉헌자 명단]
(2021년 1월 ~ 4월 현재)

강주연헤레나	김종임로사	안인순세레나	이복희루시아	조순자이사벨라
권순임릿다	김평기토마스	오남레마리아	이선임데레사	조영순마리아
길장일사도요한	김한레젼마	오선미베로니카	이성숙안젤라	조정자세레나
김금레이파	박순애데레사	오순덕율리안나	이영미마리아	차오순안나
김길동요한	박월자실비아	오준남소화데레사	이종솔미카엘	차춘자마리아
김명숙루시아	박재흥베드로	오현주안나	이현정게루피나	차향임로사리아
김명옥율리아	박태연마르타	원수관야고보	이혜순가브리엘라	최경완젼마
김명자모니카	방현옥레지나	유교순베로니카	임영자데레사	최금순마르타
김미선스텔라	방현주리디아	유야모크리스티나	장애자루시아	최신자말가리다
김복레안나	배귀레엘리사벳	유향자베로니카	장영춘마리안나	최영국발오로메오
김선덕아가다	서철수베드로	육순자데레사	장은수요한	표덕화데레사
김성신안나	송동순모니카	윤임자말가리다	장태순소피아	하유란율리안나
김성자젤마나	송은조아네스	윤진숙펠릭스	장현숙세레나	하정금바올라
김숙희베로니카	송재숙가브리엘라	윤희영율리안나	전영애프란체스카	형차순안나
김순태보나벤투라	송현귀요한	이광자가타리나	정덕순데레사	홍선의프란체스카
김연옥수산나	심데레사	이귀자수사나	정명희세실리아	홍은미유스티나
김영원올리바	심홍재디모테오	이금이마리아	정복임율리아	황병순릿다
김영임세실리아	안 도안드레아	이병열마카엘	정인주가타리나	
김정옥안나	안성옥에리카	이복영안젤로	조금원세라피나	

송철 옛날국수공장	일송정 (갈비명가)	최복순쌀상회	전주 농약사	하늘해외여행사
3대를 이어온 국수명가 송현귀(요한) 최금호(요안나)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서로 137-5(남부시장 건너편) ☎284-1908 H.P. 010-8951-2208	갈비탕, 옛날갈비찜, 갈비전골 명품한우전문 김문식(베드로) 심 데레사 완산구청 사거리(중산초방면) ☎223-9393 H.P. 010-3653-7853	쌀, 잡곡, 소금일절 김동주(바오로) 장현숙(세레나) 전주시 남부시장내 ☎284-3194 H.P. 010-3675-3194 H.P. 010-8627-3713	농약, 종자, 모종, 농자재, 묘목 황인수(요한) 김효순(루치아) 전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287-4900 H.P. 010-8239-4348	성지순례 해외여행 전세버스 최석재(스테파노) ☎286-9595

동래분식	남문&mail.남문문구센터	MG남부새마을금고	(유) 쿡뱅크	풍남정
새알팔죽, 팔갈국수, 손수제비 남부시장내 30년전통, 30년달집 양명구(다비드) 이정미(세실리아) ☎288-4607 H.P. 010-3672-0186	문구문화, 문구중심, 문구생활 원수관(야고보) 심경이(마리아) 전주시 보건소 옆 ☎283-3352	본점(남부시장) ☎283-7611-3 학산지점(평화동) ☎283-7614-5 홍산로지점(효자동) ☎286-7616-7 이사장 이경춘(마르첼리노) H.P. 010-3659-1907	그릇대여업체 장순문(프란치스코) e-mail: jsm1605@naver.com H.P. 010-7657-1606 ☎284-1606	전주전통비빔밥 불낙전골, 떡갈비 전문점 박래연, 이현숙 전동성당 후문 H.P. 010-3680-2756 ☎282-8754

전 동 계 시 판

◎ 오늘은 사제양성 후원회비 납부의 날입니다.

■ 방문 봉성체(가정): 4/21(수) 14:00

*해당되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 강 레지나 원장수녀님 연례피정:

* 4/22(목) ~ 4/30(금)

* 수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에는 성소 계발과 성소자 육성을 위한 성소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 ① 바코드 명찰은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고 받아 가시면 됩니다.
- ② 본인이 받아보신 스텹이와 본당주보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③ 각종 모임(레지오 포함)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 첫순교터 후원회원 현황

첫순교터 후원회원(4월16일 현재)	584 명
후원회원 목 표	10,000 명

우리들의 정성(4월5일~4월11일)

주일헌금:	3,433,000	교무금:	2,810,000
· 선교주일 2차 헌금:	1,396,000		
· 박정님(데레사)	100,000	· 김정옥(안 나)	100,000
· 육순자(데레사)	100,000	· 박홍운(요아킴)	100,000
· 김정옥(안 나)	100,000	· 이복영(안젤로)	100,000
· 감사헌금: 유선순(마리아)	50,000	· 익 명	500,000
· 박홍운(요아킴)	100,000		
· 이복영(안젤로)	100,000		

※ 교무금 자동이체 계좌:
신협 134-001-130673 천주교유지재단

★첫순교터 후원회 회원모집★

√ 회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정회원(월 1만원이상 납부)
	<input type="checkbox"/> 특별평생회원(일시불 100만원 이상 납부)
√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납부(사무실)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CMS 후원신청서 작성 (계좌번호: 신협 131-019-740164 / 예금주:(재)천주교유지재단)

정창희 정형외과	수진가 약국	가은노인복지센터	Roastery cafe Soul & Design Soul	남 창 당 한 약 방
뼈, 관절 물리치료실 의학박사 전문의 정창희(안젤모) 이성숙(안젤라) 전통성당 건너편 ☎284-2926, 288-1625	약사 이현명(사도요한) 약사 신지현(베르베투아) 중앙성당 인근 (구한양예식장) ☎272-8066	주·야간보호,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한삼숙(베로니카) 김정민(데레사)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P.010-3621-6007 ☎282-9241	디자인과 커피가 공존하는 Soul 서승희(클레멘시아) 조성취(안 드 레 아) 진버들6길8-10(아츨리) H.P. 010-2747-0989 H.P. 010-3683-0050	전통한약방 제1호 인증 원장 한광수 전통성당 맞은편 한옥마을 입구 H.P. 010-3653-8586 ☎284-8586